

GLOBAL TREND

# 세계지방자치동향

## 네덜란드

지방자치단체의 신개념 사회보장정책

## 미국

미국 주 정부 간 재정격차: 총 과세 가능 자원

## 일본

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속가능성 전환

## 중국

푸젠성 내 중국-인도네시아, 중국-필리핀 산업단지 조성

## 한국

투자심사사업 사후관리 개편방향



## 미국 주 정부 간 재정격차: 총 과세 가능 자원

### - Total taxable resources: TT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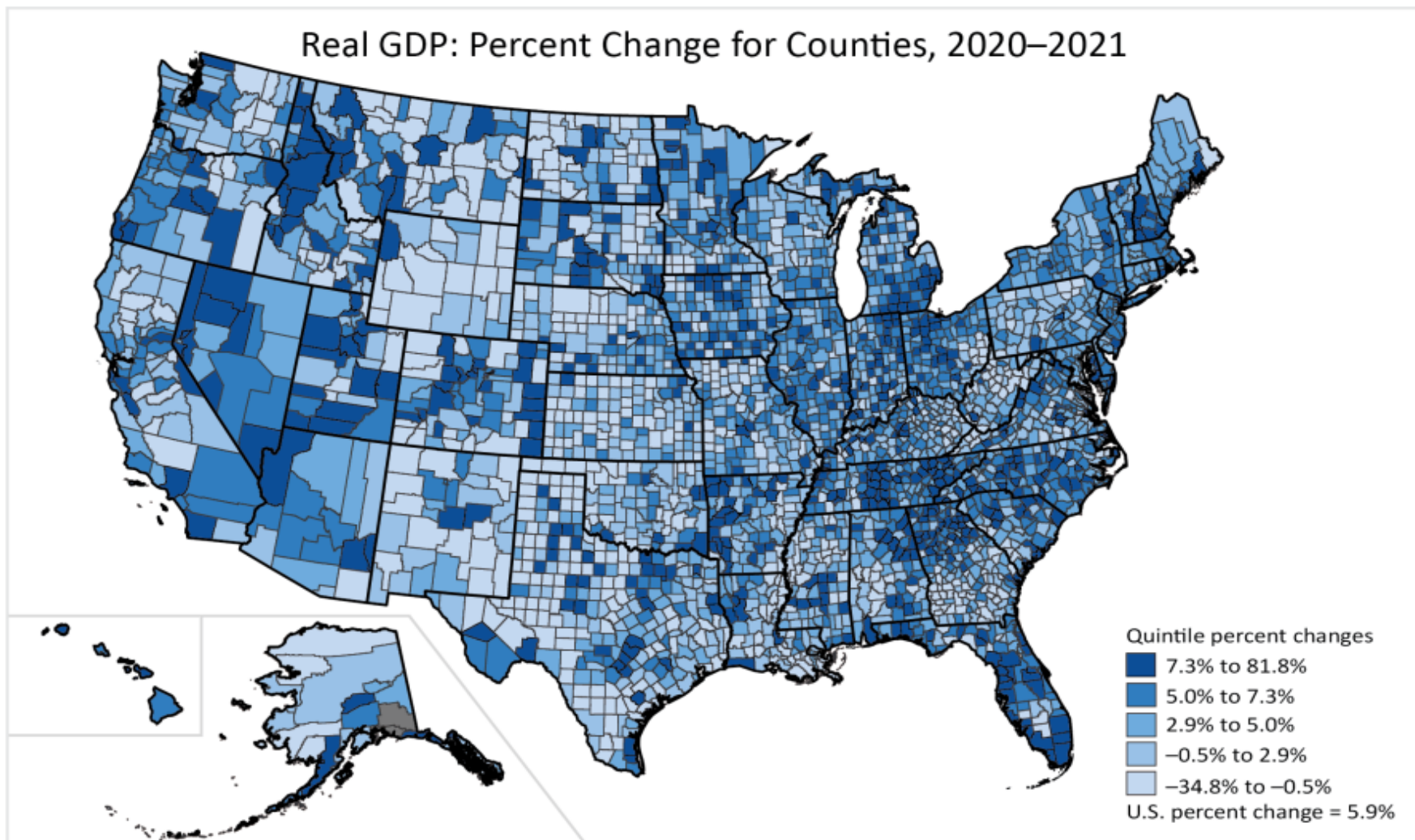
#### 배경: 미국의 주 정부 간 재정 관계 및 격차 동향

- ▶ 미국은 재정연방주의를 따라 각 주, 카운티 정부가 자율적으로 과세 및 지출 결정을 내리며, 공공재 공급과 책임이 해당 지방 정부에게 있음
- ▶ 따라서 주 정부의 총 생산능력 및 과세 가능한 자원을 측정하여 공공 서비스의 생산능력을 파악하고 그 격차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▶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규모는 '주 정부 총생산(State gross Domestic Product: GDP)'으로 확인하며, 총 과세 가능 자원(Total Taxable Resources: TTR) 및 유효 세율(Effective Tax Rate: ETR)을 사용하여 재정 격차를 측정함

#### 미국 지역 경제 규모의 격차

- ▶ 2022년 미국의 주 정부 총생산을 보면 캘리포니아 주의 실질 총생산이 2,893,948백만 달러로 미국의 모든 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, 이는 미국 전체 총생산의 약 14.4%를 차지함
- ▶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텍사스, 뉴욕, 플로리다, 일리노이, 펜실베이니아, 오하이오, 조지아, 뉴저지 주 순으로 큰 경제 규모를 이루고 있음<sup>1)</sup>
- ▶ 2022년 카운티 별 실질 총생산을 보면, 가장 큰 규모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7,119억 달러에서 가장 작은 몬태나주 페트롤리엄 카운티의 1,170만 달러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임
- ▶ 총 2,404개 카운티의 실질 총생산량은 증가했으나, 691개 카운티에서는 지역 총생산이 감소하였음 (그림 1)

그림 1. 카운티 별 실질 총생산 변화(2021)



출처:Bureau of Economic Analysis (2022)<sup>2)</sup>

## 주 정부 간 재정 격차: 총 과세 가능 자원(Total taxable resources: TTR)

- ▶ 주 정부 간의 재정 격차는 재무부(Treasury Department)에서 제공하는 ‘총 과세 가능 자원(Total taxable resources: TTR)’으로 측정함<sup>3)</sup>
- ▶ ‘총 과세 가능 자원 (TTR)’은 ‘주 총생산(Gross State Product)’과 ‘주 개인 소득(state personal income)’의 합계에서 비과세 요소와 다른 지역에서 과생된 자원을 제외하여 계산함
- ▶ ‘총 과세 가능 자원 (TTR)’은 각 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유효 과세 기반을 측정하거나 주 정부가 도달 가능한 최대 세수를 산출 및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며, 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 정부의 재정 능력을 측정하는 데 쓰임
- ▶ ‘1인당 총 과세 가능 자원(TTR per capita)’의 흐름을 보면,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 1인당 73,01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, 1인당 총 과세 가능 자원은 미시시피 주 44,373달러에서 뉴욕 주 101,358달러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<sup>4)</sup>
- ▶ 뉴욕, 코네티컷, 델라웨어, 매사추세츠, 워싱턴 주의 1인당 총 과세 가능 자원(TTR per capita)은 90,000달러 이상이며, 미시시피 주가 유일하게 50,000달러 미만으로 측정됨(표1)

- ▶ 2019년 1인당 실제 세수(Actual Tax Revenues per capital: ATR per capita)는 테네시 주가 3,423달러로 가장 낮았고, 뉴욕 주가 10,213달러로 가장 높았으며, 일반적으로 ‘총 과세 가능 자원 (TTR)’이 높은 주 정부가 실제 지방세 징수 총액도 높은 경향을 보임

표 1. 상위 10개 주 별 총 과세 가능 자원 (Total taxable resources; TTR; FY 2019)

State	Actual Tax Revenues (ATR)		Total Taxable Resources (TTR)		Effective Tax Rate (ATR/TTR)	
	Dollars Per Capita	Index to U.S Average	Dollars Per Capita	Index to U.S. Average	Dollars Per Capita	Index to U.S Average
New York	\$10,213	1.8	\$101,406	1.39	10.10%	1.29
Conncticut	\$8,308	1.46	\$101,030	1.39	8.20%	1.06
Massachusetts	\$7,342	1.29	\$98,469	1.35	7.50%	0.96
Delaware	\$5,909	1.04	\$90,474	1.24	6.50%	0.84
Washington	\$6,040	1.06	\$90,284	1.24	6.70%	0.86
New Jersey	\$7,950	1.4	\$88,402	1.21	9.00%	1.16
California	\$7,326	1.29	\$86,381	1.18	8.50%	1.09
Maryland	\$6,788	1.2	\$84,308	1.16	8.10%	1.03
Wyoming	\$5,564	0.98	\$83,109	1.14	6.70%	0.86
North Dakota	\$8,560	1.51	\$81,621	1.12	10.50%	1.35
<b>U.S</b>	<b>\$5,678</b>	<b>1</b>	<b>\$72,927</b>	<b>1</b>	<b>7.80%</b>	<b>1</b>

출처: State Higher Education Finance (2022)<sup>5)</sup>

## 시사점

- ▶ 총 과세 가능 자원(Total taxable resources: TTR)과 주에서 부과하는 과세 비율에 따라 미국 주 정부의 세입 규모가 달라짐
- ▶ 미 재무부는 주 별 총 과세 가능 자원을 측정하여 주 정부 별 과세 능력 및 주 거주민들의 소득 총량의 흐름을 추정하고 있음
- ▶ 이와 별도로 미 통계청은 ‘실제 세입(Actual tax revenues: ATR)’ 데이터를 수집 및 산출하며 모든 주 정부에서 징수한 세금 총액을 측정함
- ▶ 총 과세 가능 자원 대비 실제 세입인 ‘유효세율(Effective tax rate: ETR)’을 통해 각 주의 세입 징수 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
- ▶ 유효세율이 낮은 주는 변화하는 경제 구조 및 소득 체계를 반영하여 주 정부 세금 징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며, 주 정부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역량개발이 필요

## 참고자료

- 1) U.S. Bureau of Economic Analysis, "SAGDP1 State annual gross domestic product(GDP) summary".  
(accessed Wednesday, January 18, 2023)
- 2) <https://www.bea.gov/news/2022/gross-domestic-product-county-2021>
- 3) <https://home.treasury.gov/policy-issues/economic-policy/total-taxable-resources>
- 4) [https://shef.sheeo.org/state-effort/?report\\_page=tax-capacity-and-revenue](https://shef.sheeo.org/state-effort/?report_page=tax-capacity-and-revenue)
- 5) [https://shef.sheeo.org/wp-content/uploads/2022/06/SHEEO\\_SHEF\\_FY20\\_State\\_Effort\\_Report.pdf](https://shef.sheeo.org/wp-content/uploads/2022/06/SHEEO_SHEF_FY20_State_Effort_Report.pdf)

---

**김새림** 통신원

saelimkim@gmail.com

University of Kentucky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Ph.D.